

## 함께 드리는 대림절 기도문 5

- 우리는 거지입니다 -

2020년 1월 17일

예전에는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데 마음을 다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것도 선물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군요. 우리의 두 손이 비어 있을수록, 루터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보잘것없을수록,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1943년 12월 1일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 中)

때가 되면 나무들은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엽록소의 광합성 작용도 멈춥니다.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나무들은 스스로 비우고 멈추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비우고 멈추어서 내일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옛것을 비워야 새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저 나무들이 인간처럼 욕심스러워서 겨울에도 계속 물을 들이켜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닥쳐온 추위에 얼어터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나뭇잎들이 악착같이 들려붙어 있다면 얼마나 칙칙하고 추하겠습니까? 비움으로 사는 것, 멈춤으로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무가 때를 알아야 한다면,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제 본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했습니다.(벧전 2:11) 루터는 거지라고 했지요. 너무 심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서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원히 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사는 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 자주 그것을 잊고 삽니다. 마치 몇 백년이라도 머물 것처럼 집착하고 미련을 띕니다. 그래서 너무도 불안하고 불행하고 강팍해집니다. 우리네 나그네 길에 짐이 너무 버거워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 우리가 거지라는 말의 진짜 속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단출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탐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풋대 없이 유랑하는 뜨내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평초 같은 세월을 표류하는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욕 덩어리를 두 손으로 부동켜안고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릴 맘몬의 자식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생각하게 하소서. 불의와 타협하고 폭력에 굽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sup>1)</sup>

1) 책 : 본회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 (대림절목상집) / 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 / 출간일 : 2017.11.5. / 20~21쪽